

반환점 돈 민선 7기 성과와 과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정책 최우선”

“남은 임기 2년동안 동(洞) 정부 수준의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서구형 복지모델 완성에 힘쓰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행정시스템 정비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취임 이래 지난 2년간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사람중심의 구정을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수상 실적이 이를 대변한다.

서구는 지난해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무려 9개 사업이 우수평가를 받는 등 4년 연속 최다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구는 또 주민자치 기반 위에서 주민총회, 학교별 마을총회, 동장 주민추천제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서 구청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동의 인력, 예산 확충과 주민이 마을의 필요한 예산을 직접 챙기는 주민참여예산 등을 대폭 확대했다.

서 구청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완벽한 지방자치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동 정부 수준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그동안 쌓아온 복지노하우를 바탕으로 서구형 통합복지모델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치매테마파크·청춘발산공작소 등 동 정부 수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500억 투입 생활환경개선사업 역점

대표 사업은 광주·전남 유일 노인 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사업으로 노인이 노년 병원이거나 요양원이 아닌 가정에서 의료·복지·주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시스템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치매 테마파크인 ‘오매 불망 힐링파크’를 조성했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기관이 함께 하는 ‘서구 치매가 온머리’ 협업체를 출범시켜 노인들의 치매예방과 치료, 요양에 이르기까지 치매 통합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서 구청장은 “치매 어르신은 격리와 분리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보듬고 나아가 할 우리의 이웃”이라며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청년지원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취·창업을 위한 ‘청춘발산공작소’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청년 520여 명에게 취업과 창업의 길을 지원했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 구청장은 이밖에도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VR(가상현실) 면접체험관 운영, 일자리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취업박람회 개최, 청년 구직수당 지급, 희망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자체 수준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국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서 구청장은 구 도심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양동과 농성1동에는 500억 원을 투입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마을쉼터와 커뮤니티센터 등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등 정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구는 올해 농성 2동을 중심으로 210억 원 규

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도 준비 중이다.

서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단순한 생활환경 개선이 아닌 정주민의 삶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 복원, 소규모 생활 SOC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남은 임기 2년동안의 구정계획도 내놨다.

가장 먼저 행정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공유주차장 등 시설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2021년 공단 설립을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는 게 서 구청장의 의지다.

서 구청장은 8일 ‘취임 2년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은 모두 주민과 직원들 덕분’이라며 “남은 2년도 지역민들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민선 7기 광산구 2년 ‘행복정책’ 빛났다

김삼호 청장 ‘내 삶이 행복한 매력·활력·품격 광산’ 구정 목표 행복정책관 신설·기업주치의센터 등 성과집 ‘행복광산’ 발간

광주 광산구가 ‘내 삶이 행복한 매력·활력·품격 광산’을 구정 목표로 민선 7기 상반기 2년 동안 펼쳐온 굵직한 구정을 기록한 성과집 ‘행복광산’(사진)을 발간했다.

‘내 삶의 행복한 변화’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자에서는 광산구가 잡고 있는 두 가지 대표 사업으로 ‘행복정책 프로젝트’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꼽았다.

또 ‘매력’, ‘활력’, ‘품격’ 분야로 나눠 각각 여섯 가지씩의 사업도 소개하고 있다.

‘행복광산’에서 소개한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광산구는 구정목표인 시민 행복을 위해 ‘행복정책 프로젝트’에 역량을 집

중해 왔다. 행복을 100개 지표로 계량화해 정책 심사도구로 만들고, 전국 최초로 전담기구인 ‘행복정책관’도 신설했다.

‘매력’ 분야에서는 안전·도시·생태 부문의 사업을 설명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취임 1호 결재로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프로젝트’를 통해 ‘2019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활력’ 분야에서는 경제 부문의 성과를 다뤘다. 2018년 12월 출범한 ‘기업주치의센터’는 올해 5월 기준 컨설팅 928건, 온라인 공동마케팅 15곳 입점 9400만원의



주민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늘행복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광산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해 6월 우산동 영구임대아파트 3384세대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6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실행에 나섰다. /최승렬 기자 srchoi

매출 달성 등의 성과를 냈다.

‘품격’ 분야에선 복지·보건·문화·자치 부문의 성과 등이 나열돼 있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텃밭서 수확한 햇감자

광주 광산구 ‘신동흥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최근 상습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었던 유희부지에 ‘한마음 텃밭’을 조성하고 수확한 햇감자를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지역민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차세대 지역경제 이끌 ‘예비·명품강소기업’ 선정

광주시는 “차세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제4기 예비·명품강소기업”으로 지역 유망 중소기업 8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신규 기업은 ㈜알앤스, 21세기 메티칼㈜, ㈜대산정보기술 등 3곳이고, 재지정된 기업은 ㈜솔라, ㈜케이씨엘피,

㈜아이넷, 에이치디티㈜, ㈜에코비 등 5 곳이다. 예비·명품강소기업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연계해 운영 중인 기업성장사다리 중 첫 단계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평가해 선정된 기업

으로, 지정기간 2년 동안 집중지원을 받고 동일한 조건을 유지할 경우 1회에 한해 재지정 될 수 있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빛그린산단에 450억 들여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세먼지 대응을 선도할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가 하반기부터 광주 빛그린 산업 단지에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클러스터는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산업·수송 분야 사업장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 공간(테스트베드), 사업화 지원 시설을

갖추게 된다. 환경부는 설계비 20억원을 정부 3차 추경에서 확보했다.

2022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빛그린 산단에 3만㎡ 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클러스터에서는 오염 물질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측정기기 실증단지 등을 통해 소

재·부품·장비의 국산화, 혁신 기술 제품·사업화까지 과정을 지원한다.

국제 환경 시장은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등으로 연평균 13% 이상 성장세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유럽 연합이나 미국 등에 비해 기술 수준이 70~80% 정도에 그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